

오피니언

다산포럼

정지창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군부독재시대를 일컬어 '유언비어의 시대'라고 한다.

불리는 유언비어의 지하유통망은 더욱 노선을 확장하였다.

이러한 유통과정의 변화는 급기야 메시지의 내용과 형식에도 질적인 변화를 일

유언비어의 시대

으려 단순한 구비전승이 아닌 몸짓과 재담, 노래, 그림 등으로 확산되었고 이것이 바로 70, 80년대 민중문화의 백화제방을 낳았던 것이다.

필자는 요즘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문화제를 보면서 새로

운 문화적 활력을 느낀다. 그것은 1970년대와 80년대 민중문화의 연장선상에 있는 듯하지만 질적으로 전혀 다른 문화적 에너지의 분출이다.

돈에 눈이 먼 기성세대는 '경제 살리기'라는 속임수에 넘어가 임금님의 별거벗은 몸을 못 보았지만, 순수한 10대의 눈에는 별거벗은 임금님의 모습이 보인 것일까.

다. 통쾌하고 신선할 뿐이다.

임으로는 국민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통치의 대상으로만 보는 3공, 5공식 정부와 누구 앞에서도 할 말은 다하는 2000년대 신세대의 대결.

이러한 문화적 현상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 필자는 모른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현상이다.

격렬한 구호나 화염병이 아니라 부드러운 촛불과 재치있는 수다가 넘친다. '님을 위한 행진곡' 대신 윤도현의 '아리랑'이 불리고 운동권 명망가들의 논리적이고 상투적인 연설 대신 민초들의 감성적이고 즉흥적인 발언이 줄을 잇는다.

불법집회 참가자들을 처벌하겠다는 경찰의 위협에 나 잡아가라고 당당하게 맞서는 용기, 권력과 유착한 신문들의 뻔한 거짓말을 단숨에 격파하는 정보력, 개그맨을 능가하는 순발력은 새로운 민중문화의 지평을 열어젖히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현상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 필자는 모른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권력이 언론을 옥죄고 진실을 유언비어로 몰아붙이는 한, 민중문화의 동력은 계속 충전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영남대 독문과 교수·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LED 육성 광주 광산업 도약 기대된다

광주의 전자산업인 광산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가 고부가 가치에 대비해 LED(발광다이오드) 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국내 공공조명의 30%를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LED 1530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는 광주 광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1530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될 경우 현재 87개 업체인 LED 조명 관련업체가 115개로 늘어나고 연간 1천1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주는 2000년부터 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업체들이 한 곳에 집중돼 있고 광기술원, 광산업진흥회가 자리 잡고 있는 등 국내 유일의 클러스터 및 LED 밸리가 조성돼 있다.

광주시와 관련업체는 이 같은 유리한 여건을 활용해 타지역 업체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

이런 기회에 광주가 세계적인 광산업 클러스터 및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지역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대책 서둘러야

무안공항이 제2의 도약에 나섰다. 28일 광주~무안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면서 광주공항에서 운항하던 국제선이 모두 무안공항으로 이전되고 출입국관리 및 세관, 검역 인력이 보강되는 등 국제공항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광주~무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무안공항의 접근성은 크게 향상됐다. 광주 시청에서 무안공항까지 50분 정도 걸렸으나 25분으로 단축돼 광주시민들이 무안공항을 한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무안공항에서 운항하는 국제선은 기존의 주 15편에서 19편으로 늘어나고 세관선도 추가 운항된다.

무안공항이 제2의 도약에 나섰다. 28일 광주~무안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면서 광주공항에서 운항하던 국제선이 모두 무안공항으로 이전되고 출입국관리 및 세관, 검역 인력이 보강되는 등 국제공항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무안공항에서 운항하는 국제선은 기존의 주 15편에서 19편으로 늘어나고 세관선도 추가 운항된다.

무안공항에서 운항하는 국제선은 기존의 주 15편에서 19편으로 늘어나고 세관선도 추가 운항된다.

NGO 칼럼

이몽룡



영국 노벨상 수상작가 윌리엄 골딩(William Golging)은 "지난 20세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폭력적인 세기였다"고 말했다.

전쟁의 규모가 큰 만큼 20세기의 전쟁은 세계 판도를 크게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인종·성·언어·종교 등의 차별 없이 UN헌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정의·법의 지배·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모든 인류가 존중하면서 교육·과학·문화·의사소통활동을 통해 국가간의 협력과 이해를 증진해 감으로써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우리 협회가 운영 중인 국제이해교육 활동, 국제교류 사업, 외국인과의 교류와 함께 하는 국제이해 캠프, 국제 가족 친선의 밤, 외국인과의 문화교실 운영 등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선민의 정을 쌓아 개인은 물론 국가 간 평화롭고 풍요로운 세상을 지향하려는 것이다.

특히 국가간 교류·대화·설득·이해·상호 양보를 통한 협상은 국제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

동물과 식물의 싸움



흔히 초식동물은 희생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그들에게 희생당하는 것들도 있다. 바로 식물들이다.

아프리카에서는 기린이 아카시아 잎을 따먹으면 그 아카시아 나무는 페로몬을 방출하여 다른 아카시아 나무들에게 화학적인 신호를 보내서 독성분을 방출하도록 만든다.

이처럼 가만히 당하기만 할 것 같은 식물들도 무수한 화학적인 무기를 가지고 동물들과의 싸움에 대처하고 있다.

동물들에게는 유용한 항균물질이지만 식물이나 초식동물에게는 무서운 화학무기로 통한다. 다른 식물을 고사시키거나 잎을 못 먹게 하기 때문이다.

기린사 앞의 메타세쿼이아 나무의 일부 가지의 기린의 혀 사정권 안에 있어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한다.

◇최종욱 광주유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유네스코 합창

기, 전쟁의 세기, 냉전의 세기가 종식됐다.

새로운 21세기가 시작된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비롯한 민족·영토 분규, 환경 문제,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로 야기된 위기 등.

유네스코의 근본이념은 모든 인류가 인간의 보편성과 존엄성을 확인하는 휴머니즘(Humanism·인도주의)에 입각하여 인간과 인간, 국가와 국가 간에 관용과 대화로써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여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평화로운 세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 이러한 힘의 원천은 세계 각국에서 비정부기관 NGO로서 순수 민간운동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네스코 소속원들의 큰 협성에 의해 영향되리라 믿는다.

모든 인류가 평화를 갈구하고 분단된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의 핵개발로 촉발된 위기상황에서도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현실에서 평화운동의 전통성을 확보하고 있는 유네스코가 평화를 위한 역할을 더 거둬야 한다.

〈유네스코 광주·전남협의회장〉

먹을거리 원산지 속여 파는 업체 강력 처벌을

광주일보에서 미국산 소고기와 한미FTA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독자이자 소비자로서 한가지 덧붙일 게 있다.

정육점에 가면 고기를 갈아서 파는 것이 있다. 소비자들은 이것이 국산 한우나 국산 돼지고기를 갈아서 파는 것으로 알고 산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소비자들이 속지 않게 부정 허

위 판매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한우·토종돼지 농가 등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일이기도 하다.

요즘 불량식품 판매 악덕업자들에게는 가중처벌 형태로 벌칙을 강화하고 있다. 농축산물 허위판매 때에도 강력한 처벌이 뒤따랐으면 한다.

▲진보라·목포시 북만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로 지급합니다.

타인에게 피해주는 특정 종교 과잉포교 삼가야

우리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 하지만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특정종교의 과잉 포교는 문제이다. 도심 변화가 나타나 보면 'OO천국, OO지옥'이란 피켓을 들고 포교활동을 하는 종교인은 흔히 본다.

지나해 종교인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선교

불사활동을 나섰다가 테러단체에 억류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언론에서는 한국 종교단체의 지나치고 무분별한 포교활동을 지적했다.

▲유일숙·광주시 동구 수기동

無等鼓

중앙아시아의 여러 '스탄(땅)' 국가 중 하나인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의 북한'으로 불린다.

그렇다면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인 나이지리아 주민에게 석유는 그림의 떡이다.

고유가 공포



가고 생태계 파괴와 식수 오염의 고통만 돌아온다. 고유가가 송유관을 뚫어 석유를 훔치려다 폭발한 사고로 최근까지 2천명이나 숨졌다.

미국은 최고 종신형에 처하는데도 불구하고 치솟는 유가 곳곳에서 송유관 도둑이 들끓어 FBI가 수사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최고 종신형에 처하는데도 불구하고 치솟는 유가 곳곳에서 송유관 도둑이 들끓어 FBI가 수사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최고 종신형에 처하는데도 불구하고 치솟는 유가 곳곳에서 송유관 도둑이 들끓어 FBI가 수사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최고 종신형에 처하는데도 불구하고 치솟는 유가 곳곳에서 송유관 도둑이 들끓어 FBI가 수사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최고 종신형에 처하는데도 불구하고 치솟는 유가 곳곳에서 송유관 도둑이 들끓어 FBI가 수사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contact details and subscription rates.